<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

석유화학산업 발전과 카르텔

화학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최상의, 아니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현상이라는 것이 특정한 한두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끌어지고 결정되는 것이지만, 몇가지 현상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일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선 새로운 세계 무역체제인 WTO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재료비를 비롯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감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R&D를 강화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화학산업, 아니 한국경제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비를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임금을 비롯 부지가, 물류비, 금리 등 어느 것 하나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R&D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90년이후 임금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이고, 재벌을 비롯한 졸부들의 부동산 투기 노름에 공장 부지가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소시민들의「먹고 쓰자」심리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도 해결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관료 및 금융자산가들의 눈앞 이익에 금리도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도 수출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외화부채가 막대하고 무역적자가 매년 수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쟁력 약화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 유리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재벌을 위주로 형성된 오너층의 사업확장 의욕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경제제도 및 정책이 있을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벌 오너층의 사업확장 의욕도 신4고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진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국내산업 발전과는 일정부분 거리감을 두고 있다.
특히, 재벌 편향의 경제정책 및 제도는 대기업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한국경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벌들에게 경제산업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를 지배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국가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 카르텔의 일상화와 이를 둘러싼 재벌-관료 유착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통산부를 비롯 일부에서 불황기의 카르텔은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위기로 부터 구출함으로써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일 뿐이다.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카르텔은 수급 및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자유경제를 왜곡시킴은 물론 해당기업들로 하여금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 및 수요산업이 카르텔의 피해를 몽땅 뒤짚어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 그 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제화시대에서는 카르텔의 유용성이 전혀 먹혀들기 어렵다. 이것은 일본의 합성수지 카르텔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화학저널은 94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석유화학 카르텔이 건전한 산업발전을 왜곡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96년들어「FOCUS-석유화학카르텔」을 연재하고 있다. 아직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건전한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믿어 14회를 끝으로 일단 종료한다.
화학저널의「석유화학카르텔」을 애독 후원해주신 독자 및 화학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화학저널은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을 비롯 화학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화학저널은 석유화학과 나란이 한국 화학산업 성장의 주춧돌로 역할할 것임을 재삼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996/12/2>